

정찬주 작가의 법정 스님이야기

⑫ 행복의 문법

여러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선

삼청동 법련사는 법정 스님이 서울에 오시면 머무르던 절이었다. 스님은 민폐라며 신도 집에 머물지 않았다. 그러니 법정 스님과 볼 일이 있는 일간지 기자나 나 같은 출판사 담당자들은 법련사로 가서 스님을 뵀다. 그때의 법련사는 지금과 같은 현대식 건물이 아닌 한옥의 정겨운 느낌이 드는 절이었다.

어느 날이었다. 스님께서 파리에 길상사를 창건하려고 동분서주하고 계실 때였다. 스님께서 연락을 주시어 나는 법련사로 갔다. 조그만 방에는 스님과 여장부 같은 분위기의 여성이 앉아 있었다. 그날따라 스님의 담당기자인 J일보의 문화부장은 보이지 않았다.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셨다.

"파리에 가보니 절이 하나 없어요. 유학생도 많고 교포도 제법 되는데 마음을 의지할 만한 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을 하나 짓기로 하고 유럽의 수도원을 돌아봤어요."

스님께서는 불자는 물론이고 종교가 다른 유학생들에게도 개방하여 서로 위로하고 의지하는 절이 되기를 바랐다. 그런데 절을 짓는데 드는 경비가 문제였다. 스님은 원고료가 있으니 걱정할 것 없다며 시작하려 했으나 예상치 못한 많은 경비는 현실적인 난제였다. 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여자 분이 말했다.

"제가 벽돌 한 장 값부터 절이 완성될 때까지 모든 비용을 다 희사하겠습니다. 스님,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말씀은 고맙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절을 짓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십시일반으로 마음을 모아 짓는 것이 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여러 사람들에게 길상사가 내 집 같을 것입니다."

"아, 스님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이후 나는 파리 길상사에 대해서 잊어버렸다. 스님께서 그런 일까지 내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내가 파리를 가게 된다면 길상사에 묵으라고 권유하셔서 절이 예정대로 창건됐나보다 하고 생각했을 뿐이었다. 그런데 길상사 창건 과정에 우여곡절이 있었다는 것을 스님이 돌아가신 지 7년째가 되는 최근에야 알았다. 프랑스와 한국을 오가며 활동하시는 재불 화가 방혜자 화백께서 내가 사는 산방으로 찾아와 길상사 창건 일화를 들려주셨던 것이다.



일러스트 · 정윤경

방혜자 화백께서는 스님의 원고료에다 파리에 거주하는 불자들의 보시는 물론이고 자신의 그림을 팔아 길상사 창건 작업을 도왔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전해주셨다. 그 여자 분이 길상사를 지어주었더라면 선뜻 마음을 낸 파리에 거주하는 분들의 걱정과 고생은 면했을 터. 그런데 스님은 왜 사양했을까. 불가에는 자작자수(自作自受)란 말이 있다. 행복이란 스스로 지은 만큼 스스로 받는다는 말이다. 불행도 마찬가지이리라. 스님께서는 여러 사람에게 가야 할 행복이 한 사람에게 가는 것을 경계하셨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 공짜를 좋아하는 세상에 모름지기 수행자라면 이러한 '행복의 문법'까지 가르쳐줘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은퇴출가' 등 내년도 시행 종법 뼈대 갖춰

조계종, 은퇴출가 · 해외특별교구법 시행령 입법예고

종법 제 · 개정을 통해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조계종 은퇴출가특별법과 해외특별교구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됐다. 이에 따라 빠른 시일 내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될 예정이어서 새롭게 적용될 종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전망이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은퇴출가에 관한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및 '해외특별교구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9월 25일 종단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했다.

은퇴출가자도 소임을

먼저 올해 최대 관심사로 꼽혔던 은퇴출가특별법 시행령은 은퇴출가자의 행자등록 및 퇴사, 수계, 승적관리, 교육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담았다. 제정안에 따르면 은퇴출가를 희망하는 자는 행자등록 신고서를 비롯해 사회 각 분야서 15년 이상 활동한 경력증명서와 국민건강보험 가입증명서 등을 갖춰 교구본사에 신청해야 한다. 교구본사주지는 은퇴출가 심사가 완료되면 7일 이내 은퇴출가자가 제출한 서류를 교육원에 제출해야 하며, 교육원은 이에 대해 교육기록을 관리한다. 또한 노후복지만을 위한 출가를 예방하고자 은퇴출가자가 국민건강보험 수급권자로 등록돼 있어야 함을 명시했다.

은퇴출가 행자는 교구본사 또는 교구본사주지가 위탁 지정한 수행사찰에서만 생활할 수 있다. 삭발하고 1년 이상

은퇴출가자 건강보험 必
교육원 정기교육 받아야
해외교구 월 1회 종무회의
예고기간 10월 14일까지

행자생활을 해야 하며, 의제는 일반 행자와 같다. 6개월이 경과하면 교구본사 주지가 수계여부를 확인하고, 수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특히 교육원은 은퇴출가 행자를 대상으로 연1회 이상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사미 · 사미니계 수계교육 신청자에 대해서는 △서류 및 면접갈마 △신체갈마 △실기 및 고사 등을 실시하며, 비구 · 비구니계 수계는 신체갈마가 제외된다. 또 은퇴출가 행자는 재적본사를 이적할 수 없지만 사승의 사망이나 퇴속 등으로 인해 승려 분한을 상실했을 때 다른 사승을 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재적본사 이적은 가능하다.

이외에도 종단은 견덕 · 계덕 법계 품서 때 은퇴출가 비구와 비구니에게 동일한 법계를 품서하며, 수행사찰 주지는 은퇴출가 승려에게 전법교화활동 및 사찰종무행정 보조역할 소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특별교구 국내 설치

한편 해외에 설립된 해외특별교구를 국내에 설치하고, 별도의 해외지회를 두도록 한 해외특별교구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은 해외지회 설립절차, 해외지회장 선출방법, 해외사찰 등록 및 주지품신 절차 등을 명문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특별교구는 해외포교를 통할해 지원 관리하는 교구로 국내에 설치한다. 교구 종무를 위해 종무기구를 설치, 업무를 분장할 수 있으며 월 1회 이상 종무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해외사찰 설립자 또는 대표자는 해외지회를 경유해 교구에 신청해야 하고, 해외지회가 없는 경우 교구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주지 또는 대표자 자격은 종무원법 및 본 · 말사주지 인사규정에 의한 말사 주지 자격을 준용하지만 해외교구서 품신하고 종무회의서 인정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아울러 해외지회 설립은 타당성 조사를 통해 결정되며, 해외지회장 선출은 해당지회 구성원 과반수 출석 소집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특히 회의소집의 어려움을 감안해 우편 및 온라인 투표 등의 방법도 가능케 했다. 이밖에 해외파견승 자격과 기준은 구족계를 수지하고, 승려분한신고와 결계등록을 필한 자로서 해외포교에 원력을 지닌 자여야 한다.

입법예고기간은 10월 14일까지며, 의견수렴 방법은 서면과 이메일(hyunju@buddhism.or.kr), 팩스(02-720-3302) 등이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해인총림 50년, 세계유산 가치 · 활용 살핀다

해인사, 10월 10일 학술세미나

해인총림 개설 50주년을 맞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가치와 활용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법보종찰 해인사(주지 향적)는 오는 10월 10일 오후 1시 해인사 보경당에서 '해인총림 개설 50주년 기념 및 유네스코 등재유산 활용과 가치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1, 2부로 나눠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해인총림 개설 50주년'을 주제로 해인사 선원장 효담 스님의 '소림선원 나아갈 방향' 발제를 시작으로 해인율학승가대학원장 서봉 스님의 '해인총림 50년 율원과 계단의 현황과 전망', 해인승가대학장 무애 스님의 '해인총림 50년 승가대학 교육의 회고와 전망'이 1부에 발표된다.

2부는 '유네스코 등재유산 활용과 가치'를 주제로 진행되며 남권희 경북대 교수가 '고려팔만대장경판 서지학적 고찰 및 활용 방안'을, 최연주 동의대 교수가 '해인사 유네스코등재유산 문화컨텐츠 활용방안'을, 정상철 한국전통문화대 교수가 '고려팔만대장경판 보존관리 방안', 이혜은 종교제의유산위원장이 '해외사례를 통해본 장경판전의 활용방안'을 각각 주제 발표한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포교원 국장급 인사 단행

포교-노휴 · 신도-혜안 스님 등



왼쪽부터 노휴 · 지홍 · 원묵 · 혜안 스님.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은 9월 25일 국장단 인사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포교국장 노휴 스님, 신도국장 혜안 스님, 포교연구실 사무국장 원묵 스님이 각각 임명됐다.

포교국장 노휴 스님은 진허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0년 송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94년 일타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신도국장 혜안 스님은 대행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88년 용주사에서 송담 스님을 계사로 사미니계를 수지했으며 2000년 송광사에서 범룡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포교연구실 사무국장 원묵 스님은 도법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2001년 3월 직지사에서 녹원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2007년 4월 직지사에서 성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박아름 기자

대한불교진흥원, 스티브 힉맨 박사 특강

10월 13일 'MSC 수행' 주제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각범)은 오는 10월 13일 오후 2시 서울 마포 다보빌딩 3층 법당서 '자기연민(MSC) 수행이 어떤 도움을 주는가'라는 주제로 스티브 힉맨 박사 초청 특강을 개최한다. 이와 함께 진흥원은 10월 14~19일 힉맨 박사와 서광 스님이 공동 지도하는 MSC워크숍을 경주 황룡원서 실시한다.

스티브 힉맨 박사는 샌디에이고대학(UCSD) 정신의학과 가족예방의학부 임상 부교수로서 UCSD 통합의료 집행위원회 디렉터이자 2002년 UCSD 마음챙김센터 설립자다.

윤호섭 기자

진관사 계호 스님, 사찰음식 명장 위촉

조계종, 9월 26일 위촉장 수여식

진관사 주지 계호 스님이 사찰음식 명장으로 위촉됐다.〈사진〉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9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계호 스님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사찰음식 명장은 사찰음식의 전승과 보존, 대중화에 탁월한 업적을 세운 승납 30년 이상의 스님들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계호 스님의 사찰음식 명장 위촉은 지난 9월 21일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운영



위원회의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선재 스님에 이어 2번째다. 계호 스님은 사찰음식으로 널리 알려진 진관사 주지이자 진관사산사음식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1990년 대구에서 열린 불교아카데미 사찰음식 강의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공양주, 지역민, 교사, 가족 등 각계각층에게 교육을 펼쳐 왔다.

계호 스님은 특히 국내를 대표해 사찰음식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린 공로를 인정받았다. 계호 스님은 2010년 G20세계종교지도자, 2011년 가든클럽(외국 대사부인), 2013년 한반도 평화기원 주한외국대사, 2016년 프랑스 국무장관 초청 등 행사에서 사찰음식 만찬을 진행했다. 또한 버락 오바마 前 미국 대통령의 개인 요리사이자 백악관 前 주방장 샘 카스와 뉴욕 미쉐린 3스타 에릭 리퍼트 셰프, 세계 톱3로 꼽히는 덴마크 르네 레드제피 셰프 등에게 사찰음식 조리법을 전수한 바 있다.

박아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법인 인가 종단

사단법인 한국생활불교조계종

종정대행 · 총무원장 석 도 선
고 문 석 암 도

승정원장 석벽봉 승정부원장 석화담 승 정 석혜암 석대원
원로원장 석법령 원로부원장 석일우 원로위원 석경봉 석청산 석우암 석도명 석광운 석법산

법계고시위원장 석일두 의전자문위원장 석명구
무형문화재제9호범음범패 의 산 장 석도암

총무원장 석도선 교육원장 석남산 기획원장 석보광
총무부원장 석대공 총무부장 석도흥 호법부장 석성보 감찰부장 석성도 수행부장 석보각
사회부장 석청암 사서부장 석성우 조직부장 석성각 종무부장 석법민 문화부장 석성원
포교부장 석보현 연수부장 석성담 총무국장 석성덕 지원국장 석해인 봉사국장 석성호
포교국장 석혜성 포교국장 석법정 포교국장 석성원 의전국장 석균중 사회국장 석원각
수행국장 석성탁 종무국장 석성안
비구니회회장 석혜담 부 회 장 석효성 부 장 석지현 국 장 석충효

창원중앙종무원장 석청강 제주중앙종무원장 석의공 예천중앙종무원장 석명허 강릉중앙종무원장 석성만
성주중앙종무원장 석홍재 칠곡중앙종무원장 석혜천 부천중앙종무원장 석원해 충북중앙종무원장 석선학
포항중앙종무원장 석체법 영주중앙종무원장 석문교 속초중앙종무원장 석태성 영천중앙종무원장 석도명
안산중앙종무원장 석덕진 천안중앙종무원장 석함월 시흥중앙종무원장 석지일 경남중앙종무원장 석일지
태백중앙종무원장 석일현 김해중앙종무원장 석천각

■ 종단법인 운영이사 이 사 장 도선 수석이사 남산 체법 일두 성만 성우
운영이사 청강 일현 도명 청암 혜천 수선화 성덕 의공 학산 법광 혜림 혜화 심공 법수
종단전국여성신도회회장 수선화(정순옥)

■ 종단법률자문위원 변호사 : (明眞)김진우 | 법무사 : (雲虛)이익렬

현대불교신문 창간 23주년 을 축하합니다

사단법인 생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석 도 선

■ 종립미래로봉사회
회 장 학 산 (이종길)
부 회 장 진불심 (이순임)
총 무 대각심 (김경숙)
임 원 혜명심 (박현숙)
임 원 원명화 (윤영아)

■ 종립종합예술원
회 장 묘 각 (이재인)
부 회 장 보연화 (유희연)
국 장 불심화 (정형숙)
무 용 무애심 (박순애)
연 출 원각심 (도지연)

■ 법사승 임원
경남원장 도 혜 부산부장 혜 성 경남국장 성 광
울산원장 법 광 경기부장 자 운 사업국장 정 명
경북원장 성 인 전남부장 혜 명 사천국장 정 법
법사원장 목 암 구미부장 혜 진
충북부장 상 학 대구부장 혜 련

포교국장 덕 운 통영국장 덕 인 삼척국장 혜 원
종무국장 도 연 포교국장 혜 림 영천국장 원 명
서울국장 명 덕 봉화국장 혜 정 통역국장 정 연
포교국장 청 운 화순국장 보 정

봉 창종 15주년 기념 대법회 축
일시 : 2017년 11월 11일 (오전 : 법회 / 오후 : 유명연예인 초청 산사음악회)
장소 : 총본산 관법사

■ 총본산 : 경북 영양군 수비면 계2리 58-1번지 대표전화 054)682-5808 / 팩스 054)682-9848 ■ 총무원 : 서울 서대문구 홍제 3동 279-26 2층 대표전화 02)3217-4611 / 팩스 031)963-1688